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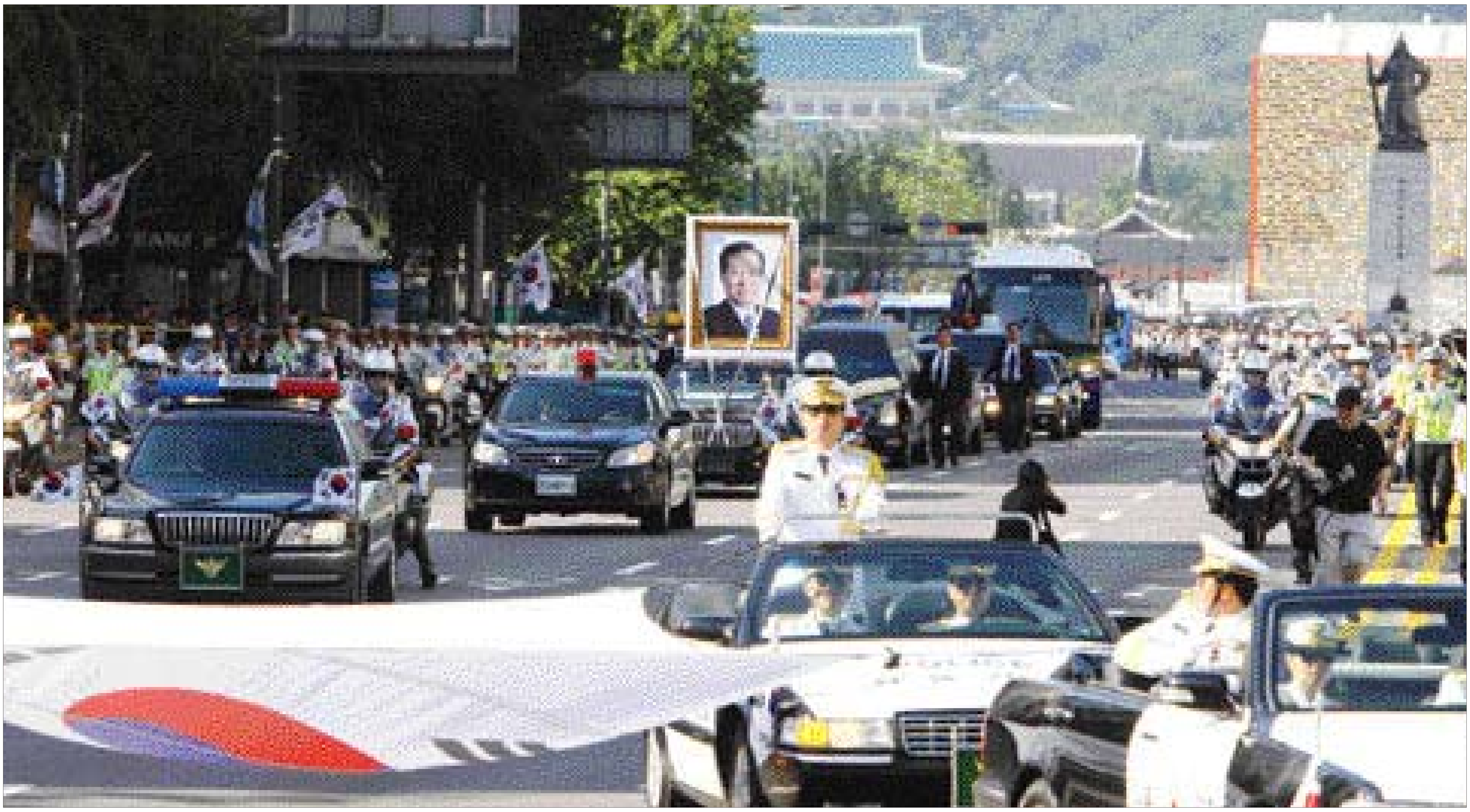
광주 21/31℃ 목포 21/29℃ 여수 23/28℃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2년 (음력 7월 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54호 1판
2009년 8월 24일 월요일

DJ, 역사가 되어 떠나다



이젠 편히 쉬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이 23일 오후 국회 영결식을 마친 뒤 전 국민의 애도 속에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 영결식
온국민 애도 속 현충원에 안장

김대중 前 대통령 영결식 ▶2·3·4·5·6·7·8·16면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의 상징이자 세계 정치계의 거목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용서와 화해, 통합과 통일의 유지를 남기고 23일 국민과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국장이 치러진 이날 국회 영결식장에서 동교동 사저→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서울역 광장을 거쳐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르는 길가와 광장 등에는 수십만명의 추도 인파가 운집,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며 애도했다.

김 전 대통령의 6일장 국장(國葬)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날 영결식과 국립현충원 안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영결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마당에서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유가족과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김영삼 전 대통령, 헌법기관장, 주한 외교사절, 각계 대표와 시민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 동안 엄수됐다. 이에 앞서 발인식은 국회 본청 앞 빈소에서 거행됐다.

영결식은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손숙 전 환경부 장관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묵념, 고인 약력 보고에 이어 장의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의 조사와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의 추도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 순으로 종교의식이 진행된 뒤 생전 영상 상영과 헌화·분향, 추모공연과 3군 의장대의 21발 조총 발사로 마무리됐다.

영결식을 마친 후 운구 행렬은 여의도 민주당사 인근 대로변에 잠시 멈춘 후 김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에 들러 접견실·응접실·서재·투석실 등을 거치며 고인의 추억을 담았다.

이어 운구행렬은 광화문 세종로 네거리와 서울광장, 서울역을 거쳐 동작대교로 한강을 넘어 오후 4시 50분께 서울 국립묘지 현충원에 도착했다.

서울광장에서는 이희호 여사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추모문화제에 잠시 참석,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국장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의 시신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의 묘소가 자리한 현충원 국가유공자 1묘역 하단부에 종교의식과 헌화·분향, 하관, 허토(흙을 관 위에 뿌리는 의식)의 순서를 거쳐 안장됐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30년 만에 국장이 거행된 이날 전국 가정과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게양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謹弔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광주일보사 임직원 일동

李대통령, 北 조문단 면담
김기남 '김정일 구두메시지' 전달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방문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등 조문단을 면담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접견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반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김 비서 등 북한 조문단 일행을 접견했다"면서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 측의 조문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갖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 조문단은 "면담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남과 북이 협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북한에 억류중인 '800연안호' 선원들의 귀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시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비공개 됐다.

한편, 북한의 조문단은 이날 오후 12시10분께 김포공항을 출발, 평양으로 향했다. 청와대 예방을 마치고 숙소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로 돌아온 김 비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잘 됐다"고 답했고 출국에 앞서 숙소를 떠나며 "좋은 기분으로 간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나로호 내일 재발사

지난 19일 7분56초를 남겨두고 연기됐던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다시 발사대에 기립했다. 나로호는 25일 오후 5시께 우주를 향한 8번째 재도전에 나선다.

나로호는 발사 이틀 전인 23일 오후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장착, 기립돼 발사 D-2 단계에 돌입했으며 발사 하루 전인 24일 최종 리허설이 다시 실시된다. 이번 리허설은 지난 18일에 이뤄졌던 과정을 다시 한 번 진행하는 것으로, 연료공급선이나 기상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순차적으로 발사절차가 진행된다. 리허설에 이상이 없으면 발사 당일인 25일 오전부터 발사운용을 시작해 발사 4시간여 전에 최종 발사시각을 확정한 뒤 발사 2시간여 전부터 연료 주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 발사 명령은 발사 20분 전쯤에 내려진다.

발사 후 나로호의 성공여부는 과학기술위성2호가 분리되는 이륙 540초 후에 결정되며 성공 확인은 데이터 분석 작업을 거쳐 발사 40분 뒤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강필상기자 kps@